

“저신용기업 코로나부도 막아라” 韓銀·産銀 SPV 설립

〈10조 규모〉

정부, 매입기구 6개월간 운용
한은, 선순위 대출로 8조 부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필요시 추가 20조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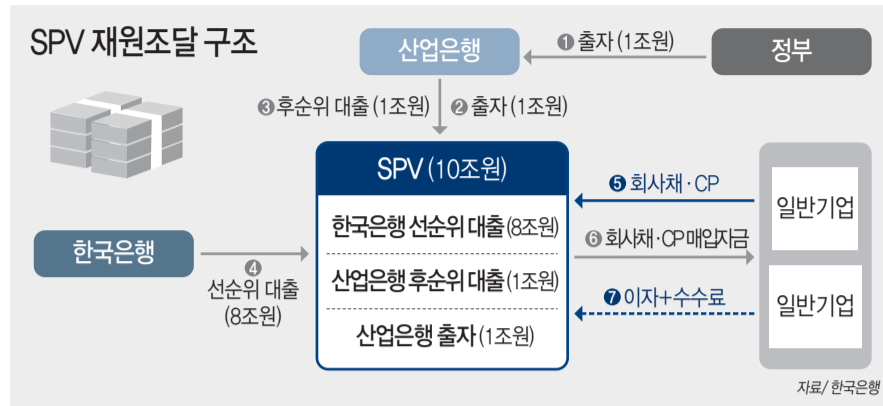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출범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고 산은은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8조원의 선순위 대출로 자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마련된 10조원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00조원+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 대응에 나섰다.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3월까지 1조원을 웃돌던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은 4월 들어 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 산은은 비우량채 직접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20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중앙은행·정책 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

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직접대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한은법 80조에 근거한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

용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출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기업의 조기상환과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다면 직접대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부의 출자로 이러한 우려를 덜게 된 것. 한은은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제공할 경우 기업의 업무,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SPV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향후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단기사채 매입에 나서게 된다.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사

들일 방침이다. 회사채는 AA~BB, CP와 단기사채는 A1~A3가 대상이다.

다만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매입대상 채권 만기도 3년 이내로 제한을 뒀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3% 이내로 정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SPV 설립 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등을 우선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 한은, 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BB+이하 등급 회사채도 매입”

일문일답

“정부·산은이 신용위험 흡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폴른엔젤(Fallen Angel)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등급이 BBB-이하 이던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BB+이하 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특수매입기구(SPV)를 통해 채권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일문일답.

-저우량 회사채·CP SPV에서는 어느 등급까지 매입할 계획인가. 등급별 시장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소화 가능한가.

“SPV에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코로나19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폴른엔젤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보통 BB 정도의 CP를 매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우량 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만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이 클 경우 SPV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비중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예

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업, 해운업 외 여타 금융위원회 지정할 경우 추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는건가.

“특정 업체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분이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았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들어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SPV 관리책임은 누가 맡을 예정인가.

“SPV는 산업은행에 설치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한다. 정부가 1조원 출자를 해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 매달 출자하는 구조다. 산은이 출자한 기구고 산은이 후순위 대출을 추가로 한다. 10조원을 기준으로 8조원을 한은이 대출해주기 때문에 한은이 SPV운영위원회의 주요멤버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10조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원과 산은의 후순위대출로 약 20%정도 까지 정부와 국책은행이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구조다. 한은에서 대출받은 8조원은 20%를 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용위험이 과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은에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이익공유장치로는 지원액의 15~20% 전환사채 발행이었는데, 10%로 낮아졌다고 보면 되나.

“최소한 10%를 주식연계 증권으로 하라는 의미다. 10%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유리기자·원은미 수습기자 yul115@

“월급 올리긴 힘들어도, 세금 깎는 건 쉽죠!”

부양가족도 없지만
매년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는 신대리, 비결이 뭘까?

절세의 프로가 되는 법, 신한금융투자 IRP

세액공제 **최대 115.5만원** | 저율과세 **5.5%~3.3%** | 퇴직연금연용상당 **1588-1122**

www.shinhaninvest.com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이 퇴직연금(IRP)은 예금보통대금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대금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 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982호(2020-04-27~2021-04-23)